

법정서 윤석열 만난 곽종근 "문짜 부쉬서라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

계엄 당시 윤석열과 두차례 통화 증언하며 울먹 시간 간다고 잊히지 않아

윤석열 작년 10월 '비상대권'·11월 '특별한 방법' 언급...비상계엄으로 이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문짜를 부쉬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짜를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자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할 때 YTN 화면을 보고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지수서에는 거친 표현을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부수고'라는 용어를 옹고라는 용어로, '끄집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라고 썼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12월 3일 오후 11시 36분과 다음날인 4일 0시 31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두 번째 통화에서 이 같은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시간이 간다고 잊하는 게 아니다"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하도 통화를 많이 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걸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감정이 격해진 듯 울먹이기도 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도끼를 사용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라고 했느냐"는 특검

팀 질문에 "도끼라는 표현은 제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느냐"고 물은 건 맞지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의 표결이 전기로 돌아가는데, (전기를 끊으면)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봤던 것"이라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그거라도 되나 제 생각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 전 단장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있냐. 가능하냐고 물었고, 김 전 단장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끌어낼 수 없느냐'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게 당시 상황과 가장 부합하는 말"이라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가진 저녁 자리와 관련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나 비상대권에 대한 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계엄이라는 용어를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당시 기억 속에 확보해야 할 장소,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이런 게 그때부터 기억 속에 있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같은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특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으로 이해한 게 맞느냐"고 묻자, "없다고 하면 거짓일 것 같다"며 "머릿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대우건설, '제14회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 대상 수상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 철학 담은 행당동 소재 '라체르보 써밋' 경관조명 통합대상 수상

대우, 작년 대치 써밋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조경과 조명 분야 트렌드 선도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오늘(30일) 오전에 개최된 올해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에서 '라체르보 써밋'의 경관조명이 통합대상(상공분야)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4회를 맞는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은 인공조명을 통해 빛공해 없이 서울의 밤환경을 안전하고 품격 있게 개선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도시경관과 조명 디자인 분야에서 높은 공신력을 갖고 있다.

이번 수상작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SUMMIT)'의 디자인 철학을 집약한 대표작으로 평가된

다. 특히 'Modern Koreaness'라는 브랜드 고유의 미학을 건축과 조경, 조명 설계 전반에 구현함으로써 절제된 아름다움과 공간의 품격을 동시에 실현했다. 더불어 건축물과 일체화된 간접조명은 공간의 질감과 흐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 경관을 만들어냈다.

아이레벨(Eye Level)에서 경험되는 ▲선권정원 ▲문주 ▲커넥티드 브릿지 ▲동출입구 등 주요 공간은 은은한 간접조명 기법을 통해 사용자의 동선과 시선을 유도하며, 고급스러운 야간 경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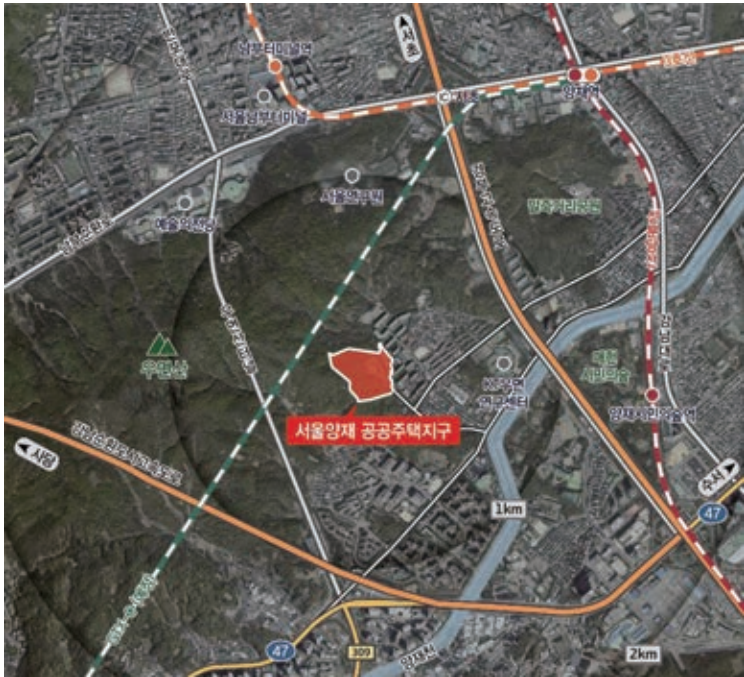
연출한다. 이는 화려함이 아닌 절제된 미학으로 공간의 가치를 강조하는 SUMMIT만의 디자인 언어다. 라체르보 써밋 경관조명은 시간대별 밝기 조절 시스템을 적용해 주변 거주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단지의 중심 공간인 선권정원은 밤 9시 이후 조도를 70%로 낮춘다. 문주 및 브릿지·동출입구 역시 단계적으로 밝기를 조절해 빛공해를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시각적 편안함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는 동시에 도시 야경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대우건설은 작년 '대치 써밋'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SUMMIT'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와 써밋 브랜드는 주거를 넘어 생활문화 전반의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철학에 걸맞은 디자인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고객들이 실제 공간에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귀영 기자

LH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제안

LH, 정부 9.7대책 일환으로 舊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인허가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양재1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약 6만㎡)를 활용해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 9.7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과거 충북혁신도시로 이전(17년)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활용해 개발

된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700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조성도 계획돼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서울도심 내 발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통해 '28년 상반기'에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입지 여건을 갖췄다.

사업지구 인근에 양재역(2km), 양재시민의숲역(1.5km)이 있어 3호선 및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2km)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2km) 등을 통해 서울 전역과 외곽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하다.

심귀영 기자

하나금융그룹·대전광역시 『하나 JOB 매칭 페스타 with 대전 중장년 채용 박람회』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맞춤형 취업 박람회

지자체 운영 채용 박람회와 통합해 공동 개최한 첫 사례, 지역 일자리 허브로 자리매김 해갈 것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9일 대전광역시와 함께 『하나 JOB 매칭 페스타 with 대전 중장년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024년부터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구직자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해 오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재취업 박람회다.

특히,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이번 『하나 JOB 매칭 페스타 with 대전 중장년 채용 박람회』는 하나금융그룹과 지자체가 각자 진행해 온 채용 박람회를 통합해 공동 개최한 첫 사례로, 「하나 JOB 매



칭 페스타'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허브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전지역 소재 56개 기업이 참여해 ▲영업관리 ▲품질관리 ▲설비 엔지니어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무별 맞춤형 채용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 중 21개 기업은 현장에서 면접 부스를 운영하며 구직

자들에게 즉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면접 참여자 선착순 100명에게 면접지원금 1만원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이력서와 면접코칭을 받을 수 있는 '코칭부스' ▲디지털 일자리 직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 체험관' ▲퍼스컬 컬러 이미지 메이킹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 재취업을 꿈꾸는 중장년을 응원하

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어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중장년지원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도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정책과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등 현장 지원에 힘썼다.

하나금융그룹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은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통해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위한 실질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며,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이번 행사는 지자체에서 진행해 온 채용 박람회를 통합해 공동 개최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송원 기자

한전,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나서... 에너지캐시백으로 전기도 절약 혜택

에너지캐시백 가입하면 이벤트 자동 응모, 추첨을 통해 650명 경품 제공

전기 절감하면 1kWh당 최대 100원 캐시백... 155만 가구 참여 중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한전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으로 늘어나는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에너지캐시백 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또는 기존 가입 고객 중 650명을 추첨해 스탠바이미GO, 음식물처리기,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



라 캐시백을 받는 범국민 참여형 절전 프로그램이다.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별로 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현재 약 155만 명이 가입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APT 거주 고객도 세대별로 신청 가능)

또한, 가입 고객이 스스로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능형전력량계(AMI)설치 고객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일별 전력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면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스마트 에너지 보고서'를 통해 절약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에너지절약 노하우 게시판에서 다른 고객들과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캐시백 참여는 겨울철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현명한 절전 실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고객이 친환경 행동에 동참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품 혜택도 누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